



2022.12.31.

국회미래연구원 | 기획연구보고서 | 22-07호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 전략

- 미중 경쟁의 미래와 한국외교에의 함의 -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 전략

- 미중 경쟁의 미래와 한국외교에의 함의 -



연구진

내부 연구진

차정미 부연구위원(연구책임)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예측과 중장기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 질서 전망에 있어 주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질서 변화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여외교 전략이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연대경쟁의 현실과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전략을 수립해 가기 위한 기초적 조사 연구, 탐색연구 차원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의 지속과 변화를 고찰하고 최근 개발도상국 외교의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학자들과의 인터뷰와 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인식과 전망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강대국들의 지정학 경쟁이 심화되는 질서 속에서 개발도상국 외교가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탐색연구로, 향후 미중 개발도상국 외교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의 미래, 한국의 중장기 개발도상국 외교 전략 연구의 주요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망 연구와 중장기 국가전략 연구의 기초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탐색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 제1장 서론 : 미중 전략경쟁과 ‘like minded’ 연대 경쟁 1
- 제2장 미중 그룹화 경쟁과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5
 - 제1절 사회정체성이론과 진영외교 : 타자화(otherring)와 그룹화 7
 - 제2절 미중전략경쟁과 그룹화 경쟁: 우리(US)와 상대(other)의 형성 9
 - 제3절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일대일로 : 자기범주화와 내그룹 형성 .. 11
- 제3장 중국의 자기범주화와 개발도상국 외교 : 지속과 변화 .. 13
 - 제1절 마오쩌둥시기 3개세계론과 개발도상국 외교 17
 - 제2절 덩샤오핑시기 남남협력론과 개발도상국 외교 19
 - 제3절 탈냉전기 중국의 다극화 전략과 개발도상국 외교 21
- 제4장 시진핑 시대 중국의 남남협력 전략 :
일대일로와 내그룹의 형성 23
 - 제1절 개발도상대국(发展中大国)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25
 - 제2절 시진핑 신시대 중국외교정책과 제3세계론적 관점의 지속 28
 - 제3절 시진핑 시대 남남협력 전략, 인류운명공동체론과 일대일로 31
 - 제4절 개발도상국 그룹화와 중국주도의 남남협력 강화 33

제5절 남남협력과 집단정체성 강화 전략	36
제5장 결론	39
참고문헌	45
Abstract	53

요 약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기술과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서사(narrative)와 정체성에 기반한 연대그룹의 구축 또한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핵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 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권위주의 국가로 '타자화(othering)'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그룹의 형성과 결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차이의 강조는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호국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서구의 중국에 대한 타자화 전략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그룹화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중국은 BRICS, 77그룹 등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남반구 협력체제를 서구의 대중국 봉쇄에 대응하고, 중국 부상 우호그룹을 확대하는 핵심 외교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서구의 대중국 견제와 인권문제제기 등이 강화되는 속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 강조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개발도상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즉 남남협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남남협력의 중요한 실천 플랫폼으로 강조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는 우호적 개발도상국들을 그룹화하는 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전략을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우리(us)와 내부그룹(in-group)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조망하고,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와 인류문명공동체 논의를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우호그룹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2장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이 어떻게 타자화와 자기그룹화의 구조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를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의 전략적 동원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다. 특히, 3장은 중국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남남협력의 틀

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왔는 지를 분석한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위기 시대에 항상 개발도상국과 중국을 뜻을 같이하는 국가로 그룹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서구에 대응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4장은 중국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론을 개발도상국 그룹의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화, 전략적 동원 차원에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자기범주화와 동원이 미중관계와 국제질서,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제 1 장

서론 : 미중 전략경쟁과 'like minded' 연대 경쟁

미국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4년마다 미래 국제질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2년에 발간된 2030 미래전망 보고서 제목은 “대안적 세계(Alternative Worlds)”였다. 그리고 10년 후 2021년에 발간된 2040 미래전망 보고서는 ‘더 경쟁적 세계(More Contested World)’를 타이틀로 하였다. 10년전 대안의 부상 단계에서 이제 훨씬 더 경쟁적인 질서가 올 것이라는 전망으로 변화했다. NIC의 2040 미래전망 보고서는 경쟁 질서 속에서 모두가 기존에 구축된 혹은 새롭게 부상하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like minded)’ 그룹과 함께 안보를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계는 점점 더 분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¹⁾ 경쟁적인 질서의 부상과 함께 정체성에 기반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 경쟁이 주요한 전략적 방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기술과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서사(narrative)와 정체성에 기반한 연대그룹의 구축 또한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핵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 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권위주의 국가로 ‘타자화(othering)’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그룹의 형성과 결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차이의 강조는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호국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서구의 중국에 대한 타자화 전략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그룹화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중국은 BRICS, 77그룹 등 글로벌 남반구의 국가들을 서구의 대중국 봉쇄에 대응하고, 중국 부상 우호그룹을 확대하는 핵심 외교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에차오(谢超)는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국제적 지지를 얻는 주요 대상은 개발도상국 그룹이라고 강조한다.²⁾ 시진핑 체제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서구의 대중국 견제와 인권문제제기 등이 강화되는 속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 강조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개발도상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즉 남남협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남남협력의 중요한 실천 플랫폼으로 강조되고 있다.³⁾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는 우호적 개발도상

1)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1), *Global Trends 2040 : A More Contested World*, p.1.

2) 谢超 (2019), “崛起国如何争取国际支持 : 兼论中国的发展中国家外交,” 『当代亚太』 2019(4), p. 26.

국들을 그룹화하는 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서구의 타자화와 디커플링 전략이 심화될수록 개발도상국을 그룹화하고 진영화하면서 중국 우호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중국이 미중 경쟁의 부상 속에서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화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 강화해 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를 서구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개되는 자기범주화와 동원전략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전략을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우리(us)와 내그룹(in-group)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조망하고,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 논의를 이리한 개발도상국의 우호그룹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2장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이 어떻게 타자화와 자기그룹화의 구조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권위주의 vs. 민주주의/ 선진국 vs. 개발도상국),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를 자기그룹화와 전략적 동원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다. 특히, 3장은 중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개발도상국, 남남협력의 틀에 위치 지우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위기 시대에 항상 개발도상국과 중국을 그룹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서구에 대응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4장은 중국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론을 개발도상국 그룹의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화, 전략적 동원 차원에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자기범주화와 동원이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고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3)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一带一路”: 新南南合作的典范,” 2015.08.18.

제2장

미중 그룹화 경쟁과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제1절 사회정체성이론과 진영외교 : 타자화(othering)와 그룹화

제2절 미중전략경쟁과 그룹화 경쟁 : 우리(US)와 상대(other)의 형성

제3절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일대일로 : 자기범주화와 내그룹 형성

제 1 절

사회정체성이론과 진영외교 : 타자화(othering)와 그룹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SIT)은 개인들이 스스로를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속한 내그룹(in-group)과 자기가 속하지 않은 외그룹(out-group)으로 그룹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⁴⁾ 이러한 내그룹과 외그룹 형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의 구성과 내재화는 개인의 ‘자기 범주화(self-categorization)’ 과정을 포함한다.⁵⁾ 결국 자아에 대한 인식, 내그룹과 외부그룹을 구분하는 데 있어 다름(otherness)은 주요한 요소가 된다.

다름(otherness)는 지배적인 자기그룹(in-group, “US,” the Self)이 실제하는 차이든 혹은 상상의 차이든 자기와 반대인 정체성을 내세워 상대그룹(out-group, “Them”, other)를 설정하는 광범위한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다름의 창조를 ‘타자화(othering)’ 이라고 할 수 있다.⁶⁾ 타자화(othering)는 타자(other)와 외그룹(out-group)을 규정하면서 자기(self)와 내그룹(in-group)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으로, 자기그룹이 가진 바람직한 특징을 타그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거나, 타그룹이 가진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자기 그룹이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타자화는 열등한 타자와 타그룹과 달리 우월한 자기와 자기그룹으로 설정된다.⁷⁾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이든 국가든 정체성 형성에 있어 “othering(타자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누가 우리 팀의 일원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 팀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소 냉전시기 미국인의 정치적 이미지에 핵심 “타인(other)”이었던 소련의 해체는 미국의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켰다고 인식되고 있다.⁸⁾

4) Sabine Trepte and Laura S. Loy, “Social Identity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in Patrick Rössler, Cynthia A. Hoffner, and Liesbet van Zoone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2017, John Wiley & Sons, Inc), p.1

5) Hogg Michael(1987), “Social Identity and Group Cohesiveness,” in John C. Turner ed.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 Basil Blackwellm, 1987), p. 101.

6) Jean-François Staszak (2009), “Other/othernes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12, p. 2.

7) Lajos Brons (2015), “Othering, an Analysis”, *Transcience, a Journal of Global Studies* 6 (1), p. 70.

8) Jeff. D. Colgan and Robert. O. Keohane (May-June 2017), “The Liberal Order is Rigged: Fix it Now or Watch it

그룹화(categorization)는 그룹내부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그룹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경계를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를 지우면서 개인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룹으로 위치 지워진다. 집단정체성은 다른 그룹과의 경계를 통해 형성된다.⁹⁾ 이러한 자기범주화는 그룹간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한 토대가 된다. 그룹화 과정(categorization process)의 결과 그룹내 차이는 최소화되고 그룹간 차이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고 그룹내 멤버들은 유사한 신념과 행동패턴을 갖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타자와 자기그룹의 구성은 패권의 부상과도 연계된다. ‘other’와 ‘self’를 형성해가면서 새로운 집단정체성을 구축할 때 패권이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글로벌 패권은 적대적 ‘타자’와 병치된 집단적 자아를 창조하는 것으로, 자기그룹의 완전한 정체성 확보의 실패는 타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게 된다.¹²⁾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3가지 사회적 행동(사회적 동원, 사회적 경쟁, 사회적 창조)은 3가지 정책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사회적 동원은 성공적 국가들의 모델을 따라하면서 국제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고, 사회적 경쟁은 패권에 도전하면서 대등한 지위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 사회적 창출은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권력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는 서구주도의 영향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지위를 인정받고 우호적 대외관계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창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Wither,” *Foreign Affairs* 96 (3). p. 43.

9) Sieglinde Rosenberger & Iris Stöckl (2018), “The politics of categorization – political representatives with immigrant background between “the other” and “standing for,”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6 (2), pp.218–219.

10) Henri Tajfel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sychol*33 (1),

11) Eva Herschinger (2012), “‘Hell Is the Other’: Conceptualising Hegemony and Identity through Discourse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1 (1), p. 67.

12) Eva Herschinger (2012), “‘Hell Is the Other’: Conceptualising Hegemony and Identity through Discourse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1 (1), p.74.

제2절

미중전략경쟁과 그룹화 경쟁 : 우리(US)와 상대(other)의 형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타자화를 통한 자기그룹화의 구축과 결속전략은 미중 전략경쟁과 연계된 정체성 정치의 핵심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 혹은 타그룹의 부정적 특징을 규정하고 자기와 차별화함으로써 자기그룹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기그룹의 우월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단순히 경제, 기술경쟁을 넘어 상호 규정 경쟁, 정체성 정치를 기반으로 하면서 미중간 우월적 정체성 서사와 이에 기반한 자기 그룹 확대 외교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외교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자기(self)와 타인(other) 형성의 과정으로 중국이 스스로를 개발도상국 그룹에 위치시키고 미국, 서구에 대항하고 대안적 질서 구축에 협력하는 우리그룹화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본 논문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를 전략적 그룹화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이를 미국의 타자화(othing)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그룹 형성(In-Group Categorization) 차원에서 분석한다.

미국의 타자화와 자기정체성 구축 :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미국은 중국을 권위주의, 비자유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결집을 독려하고 있다. 코건(Colgan)과 코헤인(Keohane)은 미국이 미국 특유의 사회정체성과 국가 서사(national narrative)를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비자유주의 국가들을 타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상업적 관계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³⁾ 프리드버그(Friedberg) 또한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규정하면서 ‘타자화(othing)’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결집시키는 동원(mobilization)

13) Jeff. D. Colgan and Robert. O. Keohane (May-June 2017), "The Liberal Order is Rigged: Fix it Now or Watch it Wither," *Foreign Affairs* 96 (3). p. 43.

을 강조하고 있다.¹⁴⁾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주도의 자유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시기에 중국의 부상을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으로 규정하고, like minded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타자화와 자기정체성 구축 : 선진국 vs. 개발도상국(패권주의 vs. 반패권주의)

자기('Self')에 대한 인식은 타자('Others')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상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체성은 서구 강대국들과의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덩(Deng)은 탈냉전시기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주류 강대국 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있는 주요국가로 배제하여 왔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이 제대로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더욱 명확해 졌다고 설명한다.¹⁶⁾ 이러한 다름의 인식은 미국이 중국을 타자화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서구의 대중국 봉쇄에 대해 미국 등 서구주도의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을 패권주의, 강권주의로 규정하고 이러한 서구패권에 부당한 대우와 개입의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는 정치적으로 서구의 대중국 봉쇄와 갈등의 환경 속에서 강화되어 왔다. 인권, 민주주의 등을 둘러싼 서구와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국은 유사한 가치와 입장을 가진 그룹, 즉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기그룹을 규정하고 연대를 강화하면서 서구그룹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내그룹(in-group)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14) Aaron Friedberg (2022), *Getting China Wrong* (Cambridge: Polity Press).

15) Shogo Suzuki (2007), "The importance of 'Othering' in China's national identity: Sino-Japanese relations as a stage of identity conflicts," *The Pacific Review* 20 (1), p. 31.

16) Yong Deng (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30.

제3절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일대일로 : 자기범주화와 내그룹 형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일대일로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외교를 실천하는 데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다. 1955년 반동회의 이후 남남협력의 개념이 발전하여 왔으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남남협력이 약화되었고 일대일로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경험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통찰을 가져다 주면서 남남협력을 재활성화시키는 주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남남협력의 연계는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공고히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¹⁷⁾

시진핑 집권 초기 옌쉐통(阎学通)은 중국외교정책이 친구와 적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게 경제 안보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⁸⁾ 이렇듯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개발도상국 그룹화와 남남협력의 플랫폼이면서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가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남반구의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화를 위해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녹색일대일로(绿色“一带一路”)와 기후변화 남남협력을 연계하면서 남남협력과 일대일로의 연결성과 중첩성을 주요한 글로벌 이슈에 활용하는 것은 일대일로를 남남협력의 우호그룹화와 중국주도성을 높이는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⁹⁾

17) Zhou Taidong, Zhang Haibing (2018),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 Opportunity to Re-energize South-South Cooperation,”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4 (4), p. 560.

18) 阎学通, “中国新外交政策——区别对待敌友,” 爱思想, 2014.02.04. <http://www.aisixiang.com/data/71983.html> (검색일: 2023.01.04.)

19) 赵斌, 唐佳 (2020), “绿色“一带一路”与气候变化南南合作——以议题联系为视角,” *教学与研究*, 2020,(11).

제3장

중국의 자기범주화와 개발도상국 외교 : 지속과 변화

- 제1절 마오쩌둥시기 3개세계론과 개발도상국 외교
- 제2절 덩샤오핑시기 남남협력론과 개발도상국 외교
- 제3절 탈냉전기 중국의 다극화 전략과 개발도상국 외교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이 속한 그룹을 전략적으로 규정하면서 대외적 갈등과 균열에 대응하여 왔고,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중국의 자아정체성과 그룹화의 핵심공간으로 자리하여 왔다. 특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위기와 고립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그룹을 형성하거나 자기그룹을 규정하면서 자국의 외교적 정치적 위상과 우호환경을 구축하는데 활용하여 왔다. 특히 제3세계,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자기범주화와 내부그룹 형성의 핵심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중국은 2021년초에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제개발협력 백서(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 서문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다(中国是世界上最大的发展中国家)”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²⁰⁾ 중국은 개발도상국 협력과 지원외교를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주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은 ‘남남협력(南南合作)’의 틀에서 강조되고 있다. 중국은 남남협력을 개발도상국들이 연대협력하여 자강하도록 하는 위대한 기획, 중국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상호이익과 공영, 단결원조에 기초한 진정한 다자협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²¹⁾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개발도상국 공동이익 수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연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²²⁾

중국은 마오쩌둥시기부터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가를 대외관계의 ‘기본 토대’ 혹은 ‘출발점’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협력을 강조해왔다.²³⁾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협력은 마오쩌둥의 3개세계론과 덩샤오핑의 남남협력의 전략인식을 지속하면서 최근 미중 전략경쟁과 서구의 대중국 디커플링 전략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롭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의 확대가 경제이익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전략이익의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는 중소분쟁 시기, 천안문 사태로 인한 외교고립 시기 등 외교적 위기국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제3세계론, 남남협력론의 틀에서 인식될 수 있다. 시진핑 시대 중

20)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21) 人民网, “共谱南南人权合作新篇章,” 2021.12.08. <https://baijiahao.baidu.com/s?id=1718523924683824655&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1.21.)

22) 新华网, “外交部发言人: 中国永远是发展中国家的真诚朋友和可靠伙伴,” 2022.11.03.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481051643770945&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2.26.)

23) 张清敏 (2007), “国家不同平等互利,” 科学决策月刊 2007年1月. 16.

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강화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호적 대외환경 구축이라는 전략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24) 罗建波, “中国与发展中国家关系为什么很重要,” 中国投资2018年第19期, 31.

제 1 절

마오쩌둥시기 3개세계론과 개발도상국 외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마오쩌둥은 신중국 건설 이후 50년대에 ‘중간지대’이론을 제시하였고, 50년대말 60년대초 중소분쟁의 부상이라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2개의 중간지대론’으로 보완되었다. 첫 번째 중간지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이고 두 번째 중간지대는 유럽, 북미, 대양주와 일본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은 첫 번째 중간지대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²⁵⁾ 1955년말 첫 번째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주은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이 식민주의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하면서 상호간의 지원과 지지를 강조하였다.²⁶⁾

1960년대말 소련의 팽창과 중소갈등의 강화 속에서 마오쩌둥은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와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1960년대말 국제정세를 소련의 공세와 미국의 수세로 인식하고 소련의 부상에 대한 위협인식을 토대로 ‘3개세계(三个世界)’이론을 제시하게 된다.²⁷⁾ 1969년 중소 국경충돌 이후 중국은 소련의 팽창에 대한 위협인식이 제고되고,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중간지대론은 세계를 3개의 세계로 분류한 ‘3개세계구분이론(三个世界划分)’로 발전한다. 3개세계구분론은 1974년 마오쩌둥의 잠비아 대통령 회담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이론이다. 미국과 소련이 제1세계,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가 제2세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제3세계로 구분하고 있다.²⁸⁾ 중국의 3개세계 구분이론은 반패권주의, 특히 소련에 대한 반패권 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1974년 제4차 비동맹국가정상회의에서 불평등한 국제관계문제를 제기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요구하에 UN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을

25) 贺艳青 (2003), 『“文革”前十年, 毛泽东国际战略中的第三世界因素』, 中共中央党校 硕士 论文. 6-7.

26) 张清敏 (2007), “国家不同平等互利,” 科学决策月刊 2007年1月. 16.

27) 丁小丽(2007), “邓小平“南南合作”思想再论,” 2007 (7), 14.

28) 姜安(2014), ““三个世界划分”理论依然没有过时,” 中国社会科学报 2014.07.02. <http://theory.people.com.cn/n/2014/0707/c136457-25246307.html> (검색일 2021.06.08.)

위한 선언(关于建立新的国际经济秩序的宣言)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행동강령(建立新的国际经济秩序的行动纲领)>을 통과시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20항의 원칙을 제출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글로벌 문제해결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평등한 참여권리, 각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사회에 부합하는 발전을 이행할 권리, 어떠한 국가도 자연자원과 국내경제활동에대한 영원한 주권을 갖는다는 것,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불리한 국제금융과무역제도 개혁, 다국적기업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권리,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무역 재정과 기술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갈 것 등을 담고 있다.

마오쩌둥의 3개세계 구분이론은 중국과 제3세계의 단결, 투쟁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었다. 중국은 제3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제3세계국가들의 지지를 통해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은 제3세계국가이고 제3세계국가들이 서로 돕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²⁹⁾ 중국이 1971년 UN 회원국이 된 당시 마오쩌둥은 “아프리카형제들이 중국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서방세계가 중국의 UN가입과 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 회복을 줄곧 반대하던 시기 제3세계 국가들이 중국의 UN가입을 지지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³⁰⁾

중국의 이러한 제3세계 국가연대 전략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독립국가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다는 것이었다. 1962년 주은래는 아프리카 11개국을 방문하면서 평등호혜 등 8개항의 원조원칙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1961년 3월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위해 국무원 직속으로 대외경제연락총국을 설립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의 경제원조와 경제기술협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외경제연락부로 확대되면서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은 총 37개 국가에 470개항목을 지원하면서 신중국건설이후 21년간 대외원조총액의 159%가 되었다.³¹⁾

마오쩌둥 시대 제3세계국가, 개발도상국가 외교는 중국이 소련과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영향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필요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패권주의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분쟁의 심화에 따른 사회주의 제국주의 소련에 대항한 연대와 협력의 구축 차원에서 이 시기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외교와 원조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29) 丁小丽(2007), “邓小平“南南合作”思想再论,” 2007 (7), 14.

30) 杨保筠(2005), “后冷战时期的中国与第三世界,” 2005.4 新视野, 78

31) 李富靖(2007), “意识形态的转变对中国与第三世界国家关系的影响,” 外交学院 硕士论文, 23.

제2절

덩샤오핑시기 남남협력론과 개발도상국 외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개혁개방이후에도 중국은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덩샤오핑 또한 마오쩌둥의 3개세계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 1981년 2월 덩샤오핑은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오쩌둥의 3개세계 이론에 근거하여 제3세계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³²⁾ 덩샤오핑은 “중국은 영원히 제3세계에 속해 있을 것이며, 패권을 추구하지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것이 중국 대외정책의 기초”라고 강조한 바 있다.³³⁾ 덩샤오핑은 1982년 북한 김일성과의 회담에서도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대외정책이 과거 반패권주의, 세계평화수호의 두 구호였다면 제3세계국가들과의 단결과 협력 강화, 반패권주의 세계평화수호라는 세가지의 구호로 변화되었다”면서 반패권과 세계평화 수호를 위한 제3세계 연대를 강조하면서 남남협력을 강조하였다.³⁴⁾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같은 외교원칙은 반제국, 반패권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등한 호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남남협력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이후 서구국가들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더욱 강조되어 왔다. 11기 3중전회 직후 덩샤오핑은 중국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문제에 대해 “서방에 대한 개방과 소련동유럽국가에 대한 개방 이외에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방”으로 개방의 3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덩샤오핑은 “제3세계 국가의 인구수는 세계 최대이고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³⁵⁾ 이 시기 중국은 ‘국제정치경제 신질서(国际经济新秩序)’ 이론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낙후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의 성공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혼합경제 지도는 저개발국가들에게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32) 丁小丽(2007), “邓小平‘南南合作’思想再论,” 2007 (7), 14.

33) 李正鸿(2004), 世界划分理论与当今时代的发展, 东北大学学报, 2004年2期 6 (2), 133

34) 丁小丽(2007), “邓小平‘南南合作’思想再论,” 2007 (7), 14.

35) 丁小丽(2007), “邓小平‘南南合作’思想再论,” 2007 (7), 15.

그러나 1980년대 서구와의 관계확대와 중소분쟁의 완화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외교적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이후 중국 외교에서 개발도상국 외교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의 경우에도 중소분쟁의 시기 중국은 아프리카를 강대국 경쟁의 공간으로 인식했던 기초에서 벗어나 조금 더 원칙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1985년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중국 지도층은 이 시기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무비판적 사회주의 발전모델 수용을 비판한 바 있다. 덩샤오핑이 당시 탄자니아 부통령에게 “사회주의는 빈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력을 제고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기초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개발도상국외교의 조정은 오래지 않아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급격히 재강화되었다. 천안문 사건 이후 서구사회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였고 중국과 서구의 밀월관계가 끝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는 중국에 주요한 전략적 지원그룹이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의 인권비판이 중국의 발전을 억지하고 근대화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³⁷⁾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서구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제3세계는 중국외교에 있어서 지속적인 핵심토대로 부상하였다. 첸치천 외교부장은 1989년 6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아프리카 14개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정부 초청으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방중하였다. 또한 천안문사건이후 중국의 대외지원도 급격히 증대하였다.³⁸⁾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남미 또한 중국에게 서구의 대중국 봉쇄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가 되면서 중국의 대 중남미 외교정책이 새롭게 강화된다. 1990년 양상쿤 주석이 중국 주석 최초로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아, 칠레 등 중남미를 방문했고,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장쩌민주석은 3차례나 중남미를 방문하였고 브라질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에서 주요한 의제로 남남협력과 국제경제질서 개혁, 내정불간섭 등을 제시하면서 서구에 대한 전략적 협력의 내용을 보여주었다.³⁹⁾

36) Ian Taylor (199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Afric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6 (3), p.445.

37) Ian Taylor (199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Afric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6 (3), pp.446-447. 앙골라 외교부장은 당시 반정부혁명을 진압한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나미비아도 중국군에게 축전을 보냈다.

38) Ian Taylor (199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Afric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6 (3), pp.448-450.

제3절

탈냉전기 중국의 다극화 전략과 개발도상국 외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중국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된다. 예쁘청은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질서는 미국일극체제와 다극화의 두 가지 추세가 공존하는 시대로 중국은 미국 일극주의 강화 시도를 억제하고 다극화를 진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극화 전략을 위해 러시아와 유럽과의 협력강화를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준동맹 구축 전략을 제안한다. 개발도상국과의 활발한 준동맹전략이 중국과 제3세계 국가간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⁴⁰⁾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보고는 “제3세계국가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이전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각자의 독립된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상호 지지할 것이며, 경제·문화 방면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⁴¹⁾ 중국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서구는 ‘소수’라는 점에서 특히 양극질서가 쇠락하는 시대에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지원이 서구의 ‘패권주의’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⁴²⁾ 1996년 제네바에서 제기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에 14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가 제기된 것은 이러한 중국의 대서구 전선의 공동대응의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⁴³⁾

2002년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국의 다극화 사상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다

39) 谢文泽(2018). “改革开放40年中拉关系回顾与思考,” 拉丁美洲研究 第40卷第1期, 11.

40) 叶自成(2000), “21世纪初的新形势与中国大国外文战略新概食,” 国际政治研究 2000年第1期, 28-32.

41) 杨保筠(2005), “后冷战时期的中国与第三世界,” 2005.4 新视野, 79.

42) Ian Taylor (199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Afric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6 (3), p.451.

43) Ian Taylor (199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Afric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6 (3), p.459.

극화 질서에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였다.⁴⁴⁾ 후진타오 또한 “강대국이 핵심이고 주변이 기본, 개도국은 외교전반의 토대”라고 개발도상국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⁴⁵⁾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외교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증대에 따라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강대국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주변외교, 지역외교, ‘제3세계외교’ 등 방면으로 외교의 중점을 확대하면서 소위 ‘다점다면(多点多面)’의 양상으로 확대되었다.⁴⁶⁾ 2000년대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중국-아프리카협력 포럼에서 무관세 수출항목을 선정하면서 시장을 개방했다. 마오와 덩샤오핑처럼 후진타오도 제3세계를 이념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인식하였고, 나아가 다극적 반패권적 질서의 창출이라는 더 큰 전략을 추구했다. 동시에 세계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⁴⁷⁾ 장쩌민 주석은 중남미 세 번째 방문시기에 “중국과 중남미 무역이 16세기에 해상실크로드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전면적 협력관계 구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2단계 무역협력 단계에서는 2002년 양측간 무역량이 200억달러에서 2012년 2,613억달러까지 10배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했다.⁴⁸⁾ 후진타오 주석은 중남미를 5차례 방문하였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화세계론, 책임대국론 등의 담론을 강조하였다. 펑레이(彭磊 2004)는 중국의 지속 발전에 3가지 위협 중 하나로 중국위협론의 확산을 제기하고,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논의가 거리와 교류의 취약 등에 근거한다고 보고 교류의 확대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충돌을 억지하면서 어떻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균형을 통해 우호적 대외환경을 구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중국학자들의 공감은 존재한다는 것이다.⁴⁹⁾

44) 李正鸿(2004), 世界划分理论与当今时代的发展, 东北大学学报, 2004年2期 6 (2), 134.

45) 韩爱勇(2020), “百年未有之大变局下中国周边外交的策略选择,” p. 79.

46) 21世纪经济报道, “中东欧之访优化中国外交格局,” 2013.11.29. <http://vnetcj.jrj.com.cn/2013/11/29014916237400.shtml> (검색일: 2021.06.14.)

47) Joseph Tse-Hei Lee (2008), “China’s Third World Policy from the Maoist Era to the Present,” *Global Asia Journal*, p.2.

48) 谢文泽(2018). “改革开放40年中拉关系回顾与思考,” 拉丁美洲研究 第40卷第1期, 11.

49) 彭磊 (2004), “中国的崛起及中国与其他第三世界国家的关系”研讨会纪要, 世界经济与政治2004年第4期, 79-80.

제4장

시진핑 시대 중국의 남남협력 전략 : 일대일로와 내그룹의 형성

- 제1절 개발도상대국(发展中国家)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제2절 시진핑 신시대 중국외교정책과 제3세계론적 관점의 지속
- 제3절 시진핑 시대 남남협력 전략, 인류운명공동체론과 일대일로
- 제4절 개발도상국 그룹화와 중국주도의 남남협력 강화
- 제5절 남남협력과 집단정체성 강화 전략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개발도상국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남남협력의 틀로 강조하면서 내그룹을 결속시키는 자기범주화와 우호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대일로는 이러한 남남협력 실천과 공동운명체로의 그룹화를 강화하는 주요한 틀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 등 1+X 외교를 남남협력의 구조로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는 남남협력의 틀에서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실천해 가는 핵심토대가 되고 있다.

제 1 절

개발도상대국(发展中大国)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21세기 중엽 세계일류 강국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영원히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 개발도상국의 편에 설 것이며, 개발도상국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자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⁵⁰⁾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함께 호흡하고, 공동운명으로 발전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이다.⁵¹⁾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는 가장 큰 개발도상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⁵²⁾ 중국은 자국을 ‘개발도상대국(发展中大国)’으로 규정하여,⁵³⁾ 대국이나 여전히 발전중인 개발도상국으로 위치

50) 海外网, “王毅: 中国永远是发展中国家的坚定一员, 永远同广大发展中国家站在一起,” 2020.09.27. <https://baijiahao.baidu.com/s?id=1678939055814131518&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2.26.)

51) 新华网, “外交部发言人: 中国永远是发展中国家的真诚朋友和可靠伙伴,” 2022.11.03.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481051643770945&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2.26.)

52) 姜安(2014), “三个世界划分”理论依然没有过时,” 中国社会科学报 2014.07.02. <http://theory.people.com.cn/n/2014/0707/c136457-25246307.html> (검색일 2021.06.08.)

53) 중국연구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등 13개 국을 개발도상 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欧阳晓, 罗富政, 罗会华, “发展中大国的遴选及其影响力评价,” 湖南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2016, 45(06).

지우고 있다. 2020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경제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1인당 GDP 1만달러를 돌파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선진국의 GDP가 일반적으로 3만달러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점, 세계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⁵⁴⁾

중국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정체성과 개발도상국 연대의 전략은 경제적 필요와 더불어 최근 미중패권경쟁 속에서 전략적 필요가 부상하고 있다. 한진(韩震)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전체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중국의 발전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왔으며, 중국의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서의 위치가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⁵⁵⁾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계속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할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거버넌스에서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고 “유엔에서 중국의 1표는 영원히 개발도상국에 속해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⁵⁶⁾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는 제2의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⁵⁷⁾ 2020년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중국이 개발도상 대국임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중화민족의 천하대동(天下大同) 이념과 중국의 국제주의 정신, 대국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18차 당대회 이후 국제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발전하였고 신시대특색의 중국국제개발협력관을 구축했다고 강조하고

54) 新浪财经, “发改委：中国是最大发展中国家的国际地位没有改变.” 2020.01.19. <https://baijiahao.baidu.com/s?id=1656129019657932176&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6.04.)

55) 韩震, “我国仍是世界最大发展中国家(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人民网 2018.04.30.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430/c1003-29958184.html> (검색일: 2021.06.14.)

56) 习近平: “中国在联合国的一票永远属于发展中国家” 央视新闻 2015.09.29. http://news.cnr.cn/native/gd/20150929/t20150929_520008168.shtml (검색일: 2021.06.14.)

57) 韩震, “我国仍是世界最大发展中国家(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人民网 2018.04.30.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430/c1003-29958184.html> (검색일: 2021.06.14.)

있다.⁵⁸⁾ 개발도상대국인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상호원조의 남남협력의 범위에 속하며, 남북협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남남협력의 확고한 지지자, 적극적 참여자, 중요한 기여자로서 계속해서 자신의 발전단계와 실제 역량에 부합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남남협력 심화발전을 촉진하고 공동자강(联合自强)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한다.⁵⁹⁾

중국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2021년 3월 중국 왕이외교부장은 외신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굳건히 옹호해 왔다”고 하면서 “중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두 번째로 큰 기여자 이면서 상임회원국중 가장 많은 수의 평화유지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항상 공정과 정의를 옹호하면서 국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는 평등을 주장하고, 중국의 한 표는 영원히 개발도상국의 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⁶⁰⁾

중국은 스스로를 책임있는 개발도상대국으로 위치지우고, 여전히 발전중의 국가이나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14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총리는 ‘중국이 책임있는 개발도상 대국으로서 2013년 세계경제 성장 기여도가 30%에 가깝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세계 평화와 지역안정의 수호자이면서 세계경제성장의 중요한 공헌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⁶¹⁾ 2020년 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고,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시진핑 주석의 약속에 대해 스스로 ‘책임있는 개발도상대국(负责任的发展中大国)’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⁶²⁾

58)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59)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60) 北京日报, “王毅: 中国这一票永远属于发展中国家,” 2021.03.07. <https://baijiahao.baidu.com/s?id=1693558332269482450&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6.14.)

61) 中国共产党新闻, “李克强: 中国是负责任的发展中大国,” 2014.09.20. <http://cpc.people.com.cn/n/2014/0909/c64094-25628569.html> (검색일: 2021.06.04.)

62) “展现中国负责任发展中大国的责任担当 :—四论积极应对气候变化建设生态文明和美丽地球.”

제 2 절

시진핑 신시대 중국외교정책과 제3세계론적 관점의 지속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중국 내에서는 마오쩌둥의 ‘3개 세계구분(三个世界划分)’ 이론이 21세기 중국 외교이념과 발전전략에도 여전히 가치있고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의 중국 위협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3개세계론은 중국위협론의 영향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개세계론은 중국을 영원한 제3세계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발전이 후에도 여전히 조화세계의 문화전통과 강대국으로서의 위력행사를 자기억제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 외교가 소비에트 패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했던 마오시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핵심국익과 주권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중국은 스스로 영원한 제3세계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화발전론과 비패권추구의 기본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덩샤오핑 시대의 ‘남남협력’ 사상이 세계 거대 시장과 인구규모를 가진 지역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과의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것 또한 이러한 남남협력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 상호존중, 호혜협력, 상호대표적인 것이 2006년 출발한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단결협력을 심화하고 손잡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개발도상국가는 국제문제에 있어 중국의 천연동맹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국가주석취임 이후와 2018년 국가주석 연임 이후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 신흥대국과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점에서 신시대 중국외교정책이 얼마나 개발도상국을 중시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⁶⁵⁾

63) 姜安(2014), ““三个世界划分”理论依然没有过时,” 中国社会科学报 2014.07.02. <http://theory.people.com.cn/n/2014/0707/c136457-25246307.html> (검색일 2021.06.08.)

64) 丁小丽(2007), “邓小平“南南合作”思想再论,” 2007 (7), 15.

65) 罗建波, “中国与发展中国家关系为什么很重要,” 中国投资2018年第19期, 31.

중국의 개발도상국 개념은 중국특색의 이해와 인식이 존재한다. 국제사회가 통상적으로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것 비해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순수한 경제적 개념보다는 풍부한 역사, 정치 문화적 속성을 지닌 개념으로 인식한다. 중국 외교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개발도상국 개념은 상당부분 마오쩌둥의 ‘제3세계’ 개념의 연장선과 발전이며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남남협력 또한 과거 아시아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77그룹⁶⁶⁾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코로나 19 발생이후 중국의 개발도상국과의 그룹화 외교는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 12월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이 중국외교에 있어 중대한 전환적 시기라고 강조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코로나 19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중국이 공동운명체라는 강한 신념하에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연대 강화 배경으로는 핵심적으로 세가지의 배경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기술적 배경이다. 경제적 시장창출과 New Coupling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과 에너지의 수입다변화이다. 중국의 자원과 에너지 안보에 있어 개발도상국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창출이다. 중국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 무역, 기술 관여는 해외시장 확대, 자본운용, 위험회피, 중국표준의 해외진출 그리고 일대일로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⁶⁸⁾

둘째는 전략적 외교적 배경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넘어 서구주도의 국제체제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 등 소수 서구국가들의 대중국 견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통해 UN등 국제체제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공간을 구축해 가고 있다. 중국이 군사동맹을 구축할 수는 없으나 전략적 정치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호그룹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66) 77그룹은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선진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어 현재 133 개국으로 회원국 확대. 2000년 중국과 77그룹은 WTO각료회의에 앞서 개도국들의 공동입장을 밝히는 등 서구선진국에 대응하는 남남협력의 틀로 활용되고 있음.

67) 罗建波, “中国与发展中国家关系为什么很重要,” 中国投资2018年第19期, 30.

68) 罗建波, “中国与发展中国家关系为什么很重要,” 中国投资2018年第19期, 31.

고 할 수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엔내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과 함께 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중국공산당이 코로나사태를 정치화하고 다른 나라에 오명을 씌워서는 안된다면서 100여개국 정당들과 함께 국제협력을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는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문제에서 미국 등 서구의 견제를 대응해가는 주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⁶⁹⁾ 개발도상국과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하면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해 줄 수 있다.⁷⁰⁾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개발도상국 관계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셋째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모델의 확산이다.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개발도상국간 지속적인 교류 특히 거버넌스와 정치경제교류가 중국의 발전모델과 발전경험을 대외에 보여줄 수 있다.⁷¹⁾

종합적으로 중국이 세계일류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국의 부상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내그룹화를 통한 지지의 동원은 주요한 전략적 토대로 인식되고 있다.

69)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100여개국 정당과 코로나19 국제협력 호소,” 2020.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8066400083?input=1195m> (검색일: 2021.06.20.)

70) 罗建波, “中国与发展中国家关系为什么很重要,” 中国投资2018年第19期, 31.

71) 罗建波, “中国与发展中国家关系为什么很重要,” 中国投资2018年第19期, 31.

제3절

시진핑 시대 남남협력 전략, 인류운명공동체론과 일대일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시진핑 시대의 운명공동체론을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은 ‘일대일로’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신시대 중국외교는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은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 우호국을 구축하면서 명확한 것은 그 중점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중점인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이 일대일로에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점, 중국이 비교우위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⁷²⁾

일대일로는 중국이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정책소통(政策沟通)、인프라연결(设施联通)、무역연결(贸易畅通)、자본금융통합(资金融通)、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⁷³⁾ 그러나, 150여국의 개발도상국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균등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개발도상국중에 우선 중점국가와 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주변국가, 아프리카국가, 서아시아국가, 중남미국가와 중동부유럽국가, 대양주 국가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⁷⁴⁾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있으나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원의 풍부함 등 일대일로 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동부유럽은 상대적으로 중국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중남미 보다는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를 제외한 14개국의 대양주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이나 상대적으로 규모와 인구가 작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⁵⁾

72) 薛力, “当下中国对发展中国家的方略,” 中国投资 2018年第19期, 33.

73)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74) 薛力, “当下中国对发展中国家的方略,” 中国投资 2018年第19期, 33.

75) 薛力, “当下中国对发展中国家的方略,” 中国投资 2018年第19期, 33.

중국이 종합적으로 세계일류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처럼 글로벌 군사동맹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필요는 없으나 우호연대국들이 필요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글로벌 강국화에 주요한 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쉬에리(薛力)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일대일로 외교에 있어 중점 국가는 남아시아의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동북아의 러시아, 동남아의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하라 남쪽의 케냐, 탄자니아, 아랍권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지역별 차강국이라고 강조한다.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서아시아의 이란도 중점 협력 대상국이 될 수 있다.⁷⁶⁾

76) 薛力, “当下中国对发展中国家的方略,” 中国投资 2018年第19期, 33.

제4절

개발도상국 그룹화와 중국주도의 남남협력 강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자기범주화를 통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 8월 18일, 왕이(王毅) 외교 부장은 베이징에서 제8차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공고한 협력이 반드시 계속 남남협력의 중추이면서 국제관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⁷⁷⁾ 중국은 스스로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개발도상국 그룹들간의 상호지원과 연대의 구조로 남남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공표된 14차 5개년계획 달성과 2035년 비전을 위한 주요한 핵심과제로 우호적 대외환경 구축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단결협력(团结合作)을 강조하고 있다.⁷⁸⁾ 중국의 강대국화와 중국이 목표로 하는 국제질서의 점진적 변화를 위한 외교적 지지환경 구축에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1월 77그룹⁷⁹⁾ 의장국 인수인계식에서 유엔주재 중국대표는 “77개국그룹과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합심해 연합자강, 공동발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3년간 개도국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생과 발전에 재차 30억달러를 제공할 것이고 계속 개도국의 신뢰가능한 동반자로 역할하겠다고 밝혔다.⁸⁰⁾

77) 外交部, “王毅: 中非友好一定会继续成为南南合作的脊梁、国际关系的典范,” 2022.08.18. https://www.mfa.gov.cn/web/wjzbz_673089/xghd_673097/202208/t20220818_10745566.shtml (검색일: 2022.10.23.).

78)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79) 유엔내 개도국들의 모임인 ‘77그룹’ 회원국은 중국, 북한을 포함해 총 134개국으로 유엔총회의 의결정족수인 3분의 2(127개국)을 초과함. <https://www.g77.org/doc/members.html>

80) CRI,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 중국은 개도국의 신뢰 가능한 동반자로 될 것,” 2022.01.15. <http://korean.cri.cn/20220115/e596117e-d00c-808e-32fb-bb3190ad6375.html> (검색일: 2022.10.23.)

〈중국의 남남협력 구조와 지역협력메커니즘〉⁸¹⁾

구분
77그룹과 중국 (77国集团加中国)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中非合作论坛)
상하이협력포럼(上海合作组织)
중국-포르투갈어국가경제포럼(中国 - 葡语国家经贸合作论坛)
중국-아랍국가협력 포럼(中国 - 阿拉伯国家合作论坛)
중국-CELAC 포럼(中国 - 拉共体论坛)
중국-카리브 경제무역협력 포럼(中国 - 加勒比经贸合作论坛)
중국-태평양 섬나라 경제 개발협력포럼(中国 - 太平洋岛国经济发展合作论坛)
중국-중동부유럽협력(中国—中东欧国家合作)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의 양자, 다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내 그룹 형성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무상원조, 무이자차관, 양허차관을 포함 2702억위안의 대외원조를 지원했다. 이중 무상원조가 47.3%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오세아니아, 유럽의 122개국과 20개 국제 및 지역다자기구에 지원을 제공했다. 이중 아시아가 30개국, 아프리카 53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22개국, 유럽 8개국이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국가 및 지역에 총 414개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20만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적자원 개발협력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9년 현재까지 72개국과 지역에 27,484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빈국 등을 중심으로 총 98건의 무이자 대출을 면제하여 총 41억 8400만 위안에 달한다.⁸²⁾

중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신중국 건설 이래 최대규모의 글로벌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150개이상의 국가와 9개 국제기구에 방역지원을 제공하였고, 34개국에 36개의 의료전문가팀을 파견했고, 세계에 2000억개 이상의 마스크, 20

81) 신시대 중국 국제개발 협력백서와 문헌연구,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자료들을 토대로 저자 정리.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82)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억개의 보호복, 8억개의 테스트키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 및 백신연구 개발협력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중국-아프리카 우호와 상호 지원의 전통을 강화하고 강화한 중국-아프리카 통일 반전염병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의 베이징 정상회의 '8대행동'의 이행, 특히 보건행동 강화를 가속화하였다. 중국-아랍협력포럼의 제9차 차관급회의는 '미래를 공유하는 중국-아랍공동체'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발전을 강화하였다. 중남미 국가들과도 외교장관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중남미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특별차관 제공을 발표하며 양측의 우호를 강조한바 있다.⁸³⁾ 중국은 백신개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고 강조하였다.

83) 环球网, “百年变局与世纪疫情下的中国外交: 为国家担当 对世界尽责,” 2021.12.12. <https://baijiahao.baidu.com/s?id=1685830657830803390&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6.08.)

제5절

남남협력과 집단정체성 강화 전략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제3세계, 중간지대는 강대국 패권주의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공조의 핵심 외교대상이었다. 시진핑 시대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대미, 대서구 대응의 주요한 협력공간이면서 연대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일대일로를 주창하면서 인류운명 공동체론을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주요한 실행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인류공동운명체라는 담론을 실행하는 핵심틀로, 개발도상국들과의 원조가 아닌 협력, 영도가 아닌 주도인 평등한 협력 공동건설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미국, 유럽이 주도하는 패권전략이나 대외원조 전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⁸⁴⁾

중국은 미국과 서구주도의 질서를 패권주의적, 강권주의적 질서로 강조하고, 반패권주의와 반제국주의를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인류공동운명체(人类命运共同体)’는 마오쩌둥시대의 3개세계구분론과 덩샤오핑 시대 남남협력이 강조했던 반패권 담론을 계승하고 있다. 환칭즈(郇庆治)는 ‘인류운명공동체론’의 주요한 측면중 하나가 중국의 ‘3개세계구분(三个世界划分)’ 이론 혹은 전략(반패권이론)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미국의 스마트파워(패권이론), 유럽의 ‘규범적 권력이론(준패권이론)’과는 차이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오의 중간지대론과 제3세계론은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않는 반패권 전략의 목표를 분명히 하였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담론 또는 무기가 되어왔고 이러한 정치적 유산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⁸⁵⁾

일대일로 공동건설 플랫폼은 발전전략을 연계한다. 장비제조표준화, 기술표준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국가를 대상으로 4000개 이상의 공동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중

84) 郇庆治 (2017), “理解人类命运共同体的三个重要层面,” 中国共产党新闻 2017/08/15 http://theory.people.com.cn/GB/n1/2017/0815/c40531-29470252.html?ivk_sa=1024320u (검색일 : 2021.06.08.)

85) 郇庆治 (2017), “理解人类命运共同体的三个重要层面,” 中国共产党新闻 2017/08/15 http://theory.people.com.cn/GB/n1/2017/0815/c40531-29470252.html?ivk_sa=1024320u (검색일 : 2021.06.08.)

국은 개발도상국의 개별 국가전략과 일대일로를 연계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의 “Agenda 2063”, 아세안의 “ASEAN Connectivity Master Plan 2025” 및 파키스탄의 “신 파키스탄”, 라오스의 “내륙국으로의 변화”, 필리핀의 건설 개발 계획 및 개발 전략에 대한 교류, 카자흐스탄의 “밝은 길”, 몽골의 “개발로” 등 다양한 국가비전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결하고 있다.

2022년 9월 중국과학원 주도로 설립된 일대일로 국제과학조직연맹(ANSO)는 ‘남남협력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남남기술협력을 통한 녹색미래 구축’으로 남남협력과 제3자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협력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포럼에는 31개국 600여명의 학자 전문가 기업들이 참여하였다.⁸⁶⁾

2022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발전구상(GDI) 우호그룹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아랍 산유국들의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 기후변화 고위급회의, 중동안보포 등 다자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2017년 중국은 제1차 ‘남남인권포럼(南南人权论坛)’을 개최하기도 하였고,⁸⁷⁾ 2022년 7월 4일 “글로벌발전구상-미디어의 책임과 행동방향(全球发展倡议—媒体责任与行动导向)” 관련 씽크탱크 고위급포럼을 개최하고, 다수의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브라질 247웹사이트 편집장은 서방언론사들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브릭스 국가들간의 언론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⁸⁸⁾

2022년 9월 유엔총회에서 개최된 기후변화고위급회의에서 왕이외교부장은 중국은 기후변화관련 광범위한 남남협력을 전개하고 있고, 글로벌 발전구상을 추진하고 녹색실�크로드를 함께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⁸⁹⁾ 중국 국제개발 협력백서는 또한 유엔2030지속가능 개발의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⁹⁰⁾

86) ANSO, “2022 International Forum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ade in Services Concludes in Beijing,” 2022.09.14. http://www.anso.org.cn/index/news/202209/t20220914_715175.html (검색일: 2022.11.06.)

87) 人民网, “共谱南南人权合作新篇章,” 2021.12.08. <https://baijiahao.baidu.com/s?id=1718523924683824655&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1.21.)

88) 中国新闻网, “中外专家: 全球发展倡议以行动为导向, 使各国更加关注南南合作,” 2022.07.05. https://share.gmw.cn/world/2022-07/05/content_35862357.htm (검색일: 2022.11.07.)

89) 外交部, “团结实干 共同推进全球气候治理——在气候变化高级别会议上的致辞,” 纽约联合国总部, 2022.09.21. https://www.mfa.gov.cn/web/wjzb_673089/zjyh_673099/202209/t20220922_10769510.shtml (accessed 2022. 10.23.)

90)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제5장

결론

중국은 “대국관계 관건, 주변관계 최우선, 개발도상국가는 기초, 다변은 무대(大国是关键、周边是首要、发展中国家是基础、多边是舞台)”라는 외교정책 구상을 토대로 개발도상국 관계를 강조해 왔다. 스스로 개발도상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 그룹의 일원임을 규정하여 왔다. 그리고, 77그룹 등 개발도상국가들의 협력체를 통해 스스로 그룹내 주도적 역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반패권, 반제국주의, 내정 불간섭과 불평등 등 서구선진국을 대상으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남협력을 개발도상국들간의 상호지원과 연대, 자강의 구조로 강조하면서 서구선진국과 다른 ‘우리’(in-group)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이후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 중국은 당대회 이후 외교에서 사회주의 연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3기 공식화 이후 응우옌 푸 쯙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초청하고 회담한 이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대통령, 통룬 시슬릿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과 연달아 회담하고 있다. 중국은 쿠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억달러 지원을 제안하였고,⁹¹⁾ 시진핑은 “쿠바의 사회주의 추구를 지지하는 중국의 결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패권과 강권정치를 반대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쿠바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외부간섭과 봉쇄를 반대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쿠바는 ‘77그룹과 중국’ 등 국제다자체제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발전 및 개도국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⁹²⁾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연대의 강조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그룹화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 그룹화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쉬리핑 중국사회과학원 동남아 연구센터장은 “전례 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통치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주의 대의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⁹³⁾ 이는 중국이 대외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서구와의 갈등 속에서 개발도상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동대응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자기정체성을 새

91) 뉴스1, “시진핑, 경제위기 쿠바에 약 1380억원 지원 약속. 사회주의 연대강화,” 2022.11.27.

92) 뉴스1, “시진핑, 쿠바 대통령과 회담.. 양국 사회주의 국가 단결 모범,” 2022.11.25.

93) 뉴스1, “시진핑 3연임 뒤 사회주의 국가 연대 강화... 북 김정은과 곧 만날까,” 2022.11.25

롭게 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부그룹을 결속시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발도상국의 우리그룹화와 사회주의 연대 강화의 움직임은 북한의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 관여 외교에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북한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는 개발도상국 연대를 지속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 스스로 개발도상국 그룹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 그룹과의 연대와 지지로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적 정체성 구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2022년 9.13일 ‘남남협력의 날’을 맞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지난 시기 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 서방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로 사회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적지 않게 억제당해 왔다”고 비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낡고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를 허물고 미국과 서방의 정치경제적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는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도 세계의 모든 개발도상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새로운 국제경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⁹⁴⁾ 북한은 또한 2022년 9월 1일 ‘비동맹의 날’을 맞아 비동맹운동(NAM)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창립 초기 불과 25개의 나라들로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뿔럭불가담운동은 오늘 120개 성원국을 망라한 광범한 국제적 운동”이라며 “단결과 집단적 행동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 내정 간섭과 이간 조성 책동을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뿔럭불가담 운동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상정, 논의되는 주요 국제 문제들에서 운동 성원국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집단적 자력갱생에 기초하여 남남협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교류와 협력,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⁹⁵⁾ 북한은 2022년 11월 3일 쿠바정상 방북 4주년에 친서를 보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반제자주, 사회주의 가치를 변함 없이 높이 추켜들고 상호지지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⁹⁶⁾ 북한은 이렇듯 사회주의 국가간 연대에 집중하고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연대와 남남협력의 틀을 주요한 자

94) 양은하, “北외무성 “미국 예측 벗어나기 위한 남남협조는 시대적 흐름” 뉴스1, 2022.09.13. <https://www.news1.kr/articles/4800660> (검색일: 2022.10.25.)

95) 박수윤, “북한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해야”...국제사회 지지 호소,” 연합뉴스, 2022-09-01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1110600504?input=1195m> (검색일: 2022.10.25.)

96) 연합뉴스, “쿠바 정상 방북 4주년에 반제투쟁에 지지와 연대,” 2022.11.03.

기그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대중 봉쇄와 전제가 강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스스로 개발도상대국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의 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연대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서사와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개발도상국,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자기그룹화는 개발도상국과 남남협력 사회주의 국가연대에서 지지와 협력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중국의 전략적 자기그룹화의 구조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균열과 전략적 연대 그룹의 형성을 통한 중국의 전략과 연계될 경우 북중관계 또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한 대항과 국제질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중국이 서구에 대항한 자기그룹화와 동원의 정체성 정치를 지속 강화할 경우, 북중관계 또한 그러한 내그룹(in-group)으로서의 그룹화가 강조되고 개발도상국과 남남협력, 사회주의 연대의 틀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서구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대응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전략경쟁이 기술과 경제 군사를 넘어 정체성 경쟁을 포괄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타자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 대국으로 규정하고 자기그룹화를 통해, 미국을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로 타자화하고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국가들을 결속시키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간의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그룹의 형성과 결속 경쟁이 지속 강화될 수 있다. 미중 양국간의 상대그룹에 대한 부정과 자기그룹의 결속이라는 전략이 국제질서의 이원화와 진영화, 나아가 그러한 균열 구조에 기반한 북중관계의 그룹화와 결속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외교에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2. 웹사이트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Deng, Yong. 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berg, Aaron. 2022. *Getting China Wrong*. Cambridge: Polity Press.
-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1. *Global Trends 2040 : A More Contested World*.
- Brewer, Marilyn B. and Michael D. Silver. 2000. "Group Distinctiveness, Social Identification, and Collective Mobilization." in Sheldon Stryker, Timothy Joseph Owens, and Robert W. White. *Self,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Univ Of Minnesota Press.
- Staszak, Jean-François. 2009. "Other/othernes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12.
- Brons, Lajos. 2015. "Othering, an Analysis", *Transcience, a Journal of Global Studies* 6 (1).
- Colgan, Jeff. D. and Robert. O. Keohane. 2017. "The Liberal Order is Rigged; Fix it Now or Watch it Wither." *Foreign Affairs* 96 (3).
- Rosenberger, Sieglinde and Iris Stöckl. 2018. "The politics of categorization - political representatives with immigrant background between "the other" and "standing for"."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6 (2).
- Tajfel, Henri.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sychol* 33 (1).
- Herschinger, Eva. 2012. "'Hell Is the Other': Conceptualising Hegemony and

- Identity through Discourse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1 (1).
- Suzuki, Shogo. 2007. “The importance of ‘Othering’ in China’s national identity: Sino-Japanese relations as a stage of identity conflicts.” *The Pacific Review* 20 (1).
- Zhou Taidong, Zhang Haibing. 2018.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 Opportunity to Re-energize South-South Cooperation,”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4 (4).
- Taylor, Ian. 199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Afric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6 (3).
- Lee, Joseph Tse-Hei. 2008. “China’s Third World Policy from the Maoist Era to the Present,” *Global Asia Journal*.
- 谢超. 2019. “崛起国如何争取国际支持：兼论中国的发展中国家外交,” 『当代亚太』 2019年4期.
- 张清敏. 2007. “国家不同平等互利.” 『科学决策月刊』 2007年1月.
- 罗建波. 2018. “中国与发展中国家关系为什么很重要.” 『中国投资』 2018年19期.
- 贺艳青. 2003. 『“文革”前十年, 毛泽东国际战略中的第三世界因素』, 中共中央党校 硕士论文.
- 杨保筠. 2005. “后冷战时期的中国与第三世界.” 『新视野』 2005年4期.
- 李富靖. 2007. “意识形态的转变对中国与第三世界国家关系的影响.” 外交学院 硕士论文.
- 李正鸿. 2004. “世界划分理论与当今时代的发展.” 『东北大学学报』 2004年2期.
- 丁小丽. 2007. “邓小平“南南合作”思想再论.” 2007年7期.
- 谢文泽. 2018. “改革开放40年中拉关系回顾与思考.” 『拉丁美洲研究』第40卷第1期.
- 叶自成. 2000. “21世纪初的新形势与中国大国外文战略新概食.” 『国际政治研究』 2000年1期.
- 韩爰勇. 2020. “百年未有之大变局下中国周边外交的策略选择”

- 彭磊. 2004. “中国的崛起及中国与其他第三世界国家的关系”研讨会纪要. 『世界经济与政治』 2004年4期.
- 欧阳晓, 罗富政, 罗会华. 2016. “发展中大国的遴选及其影响力评价.” 『湖南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45 (06).
- 薛力. “当下中国对发展中国家的方略,” 『中国投资』 2018年19期.
- 赵斌, 唐佳. 2020. “绿色“一带一路”与气候变化南南合作——以议题联系为视角.” 『教学与研究』 2020 (11).

2 웹사이트

-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100여개국 정당과 코로나19 국제협력 호소.” 2020.04.08.
- CRI.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 중국은 개도국의 신뢰 가능한 동반자로 될 것.” 2022.01.15.
- 뉴스1. “시진핑, 경제위기 쿠바에 약 1380억원 지원 약속. 사회주의 연대강화.” 2022.11.27.
- 뉴스1. “시진핑 3연임 뒤 사회주의 국가 연대 강화... 북 김정은과 곧 만날까.” 2022.11.25
- 뉴스1. “시진핑, 쿠바 대통령과 회담.. 양국 사회주의 국가 단결 모범.” 2022.11.25.
- 양은하, “北외무성 “미국 예측 벗어나기 위한 남남협조는 시대적 흐름” 뉴스1, 2022.09.13.
- 박수윤, “북한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해야”...국제사회 지지 호소,” 연합뉴스, 2022-09-01
- 연합뉴스, “쿠바 정상 방북 4주년에 반제투쟁에 지지와 연대,” 2022.11.03.
-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一带一路”：新南南合作的典范.” 2015.08.18.
- 阎学通. “中国新外交政策——区别对待敌友.” 爱思想. 2014.02.04.

<http://www.aisixiang.com/data/71983.html> (검색일: 2023.01.04.)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际发展合作》白皮书,” 2021.01.10.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696685/1696685.htm> (검색일: 2022.11.21.)

人民网. “共谱南南人权合作新篇章.” 2021.12.08.

<https://baijiahao.baidu.com/s?id=1718523924683824655&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1.21.)

新华网. “外交部发言人：中国永远是发展中国家的真诚朋友和可靠伙伴,” 2022.11.03.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481051643770945&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2.26.)

姜安. ““三个世界划分”理论依然没有过时.” 中国社会科学报 2014.07.02.

<http://theory.people.com.cn/n/2014/0707/c136457-25246307.html> (검색일 2021.06.08.)

21世纪经济报道. “中东欧之访优化中国外交格局.” 2013.11.29.

<http://vnetcj.rj.com.cn/2013/11/29014916237400.shtml> (검색일: 2021.06.14.)

海外网. “王毅：中国永远是发展中国家的坚定一员，永远同广大发展中国家站在一起.” 2020.09.27.

<https://baijiahao.baidu.com/s?id=1678939055814131518&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2.26.)

新浪财经. “发改委：中国是最大发展中国家的国际地位没有改变.” 2020.01.19.

<https://baijiahao.baidu.com/s?id=1656129019657932176&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6.04.)

韩震. “我国仍是世界最大发展中国家（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人民网. 2018.04.30.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430/c1003-29958184.html> (검색일: 2021.06.14.)

- 习近平. “中国在联合国的一票永远属于发展中国家.” 央视新闻 2015.09.29.
http://news.cnr.cn/native/gd/20150929/t20150929_520008168.shtml (검색일: 2021.06.14.)
- 环球网. “百年变局与世纪疫情下的中国外交：为国家担当 对世界尽责,” 2021.12.12
<https://baijiahao.baidu.com/s?id=1685830657830803390&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6.08.)
- 外交部. “王毅：中非友好一定会继续成为南南合作的脊梁、国际关系的典范.” 2022.08.18.
https://www.mfa.gov.cn/web/wjbx_673089/xghd_673097/202208/t20220818_10745566.shtml (검색일: 2022.10.23.).
- 外交部. “团结实干 共同推进全球气候治理——在气候变化高级别会议上的致辞.” 纽约联合国总部, 2022.09.21
https://www.mfa.gov.cn/web/wjbx_673089/zyjh_673099/202209/t20220922_10769510.shtml (accessed 2022.10.23.)
- 北京日报. “王毅：中国这一票永远属于发展中国家.” 2021.03.07
<https://baijiahao.baidu.com/s?id=1693558332269482450&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6.14.)
- 中国共产党新闻. “李克强：中国是负责任的发展中大国.” 2014.09.20.
<http://cpc.people.com.cn/n/2014/0909/c64094-25628569.html> (검색일: 2021.06.04.)
- 郇庆治. “理解人类命运共同体的三个重要层面.” 中国共产党新闻 2017.08.15
http://theory.people.com.cn/GB/n1/2017/0815/c40531-29470252.html?ivk_sa=1024320u (검색일 : 2021.06.08.)
- ANSO. “2022 International Forum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Trade in Services Concludes in Beijing.” 2022.09.14.
http://www.anso.org.cn/index/news/202209/t20220914_715175.html (검색일: 2022.11.06.)

中国新闻网. “中外专家：全球发展倡议以行动为导向，使各国更加关注南南合作.” 2022. 07.05.

https://share.gmw.cn/world/2022-07/05/content_35862357.htm (검색일: 2022. 11.07.)

Abstract

China's Diplomacy toward the Developing states and its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various factors have emerged as crucial components in determining the outcome. While traditional considerations such as technology, military prowess, and diplomacy remain important, the cultivation and strengthening of solidarity groups based on national narrative and identity have increasingly come to the fore as decisive factors in this competition. In response to China's growing influence,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a key strategy to form alliances with nations that share similar values and perspectives, known as "like-minded countries." This strategy involves emphasizing the distinctions between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governance, and utilizing this dichotomy to mobilize and organize friendly nations in opposition to China's rise. In this way, the United States aims to build a coalition of nations united by shared democratic ideals in order to counter China's expansion in the strategic arena. In response to the West's strategy of positioning China as a separate entity and aligning with countries that share similar perspectives, China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ations in the global southern hemisphere, such as the BRICS and Group of 77. This serves as a countermeasure to the West's attempts to isolate China and expand the country's network of allies.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Xi Jinping,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intensified, with the West continuing to impose checks on China and rais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issues. To counteract this, China has placed a

greater emphasis 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By positioning itself as a member of the developing world and defining its support for these nations as “South-South cooperation,” China aims to assist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own developmen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as been particularly emphasized as a key platform for this new form of south-south cooperation, serving as a framework for grouping together friendly developing countries that support China’s rise.

This study examines China’s diplomacy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and its strategy of South-South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he formation of an in-group alliance that supports China’s ascent. The analysis centers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concept of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explores how China positions itself as a developing country within the framework of South-South cooperation. The study delves into the dynamics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context of othering and self-grouping, particularly in terms of authoritarianism versus democracy and developed versus developing countries.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how China employs self-categorization and strategic mobilization in its diplomacy with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during time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crises. Lastly, the study concludes by analyzing the implications of China's diplomacy towards the developing states for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 전략

- 미중 경쟁의 미래와 한국외교에의 함의 -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6948-9650)

©2022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82065-6-5 (9534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